

# 特輯

## 在美 韓國科學技術者 國內誘致에 關한 懇談會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 閔寬植)와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회장 崔相壹)는 제5차 國內외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綜合學術大會 開催 目的의 하나인 在外한국과학기술자 國內誘致를 위해 大會 마지막 날인 7월20일 科學技術會館 9층 講堂에서 在美韓國科學技術者 國內誘致를 爲한 懇談會가 열렸다.

海外에서 活躍하고 있는 韓國科學技術者의 優秀한 頭腦를 國內에 誘致하여 科學 技術의 振興과 産業發展에 加速化하자는 것은 오늘의 時點에서 볼 때 充分한 妥當性을 지닌 意圖이다.

反面에 海外에서 活動中인 우리 科學技術者들이 祖國의 現實을 理解하면서도 선뜻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그들의 希望은? ..... 그들의 要求는? ..... 또한 이미 誘致되어 일하고 있는 이들의 形便은? .....

國內 産業技術界와 企業體 代表들의 發言을 간추려 본다.

이날 간담회에는 國內側에서 閔寬植 科總會長을 비롯 産業技術界 重鎮들과 在美側에서 崔相壹 박사(在美科協會長)등 在美科學技術者(第5次 綜合學術大會 參加者) 100餘名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뤘다.

### 討 論 參 加 者 (國內側)

姓 名	現 職 位	最 終 學 校	重 要 經 歷
馬 景 錫	木林엔지니어링社長, 엔지니어링클럽會長, 科總副會長	서울工大 化工科 서울大學院 化工科	樂喜化學 技師長, 東洋化學소다灰事業部長, 忠州肥料 理事, 工場長, 麗水石油化學 副社長
李 春 和	精密機器센터 理事長	國防大學院 延大經營大學院	遞信部 電務局長, 陸本 通信監 合同參謀部 通信電子局長, 忠州肥料 監事
姜 晋 永	三星電子 社長	서울工大 電子科	東洋放送 理事, 中央日報 理事
朴 鍾 泰	製鐵販賣 社長	서울工大 金屬科	大韓重石新入社員, 大韓重石 所長 浦項綜合製鐵所長 兼 技術理事
金 鳳 完	大成메탄올 專務理事	서울工大 機械科	鎮海 海軍工廠, 朝鮮機械製作所
金 勝 坤	味元重機 專務理事	서울工大 化工科	綜合技術開發公社 理事, 味元 技術常務
崔 炳 午	湖南石油化學 常務理事	서울工大 化工科	忠州肥料 訓練生, 忠州肥料 技術部長 韓國카프로락담 工場長
歸 國 者			
鄭 萬 永	通信技術研究所長 美國 2年, 日本 20年	서울大 豫科理甲 大阪大 工學部 Ph D	電氣通信研究所 技正, 原子力研究所 電子工學研究室長, 韓國科技術研 副所長
鮮 于 滙	東洋麥酒 副社長 西獨 4年	서울工大 化工科 西獨윤원工大 Ph D	微生物學會 副會長, 東洋麥酒 工場長 東洋麥酒 專務理事
鄭 善 昊	大韓電線常務理事 美國8年	美뉴욕州立大學院 Ph D	Merrimac 研究員, KIST室長
安 泳 玉	三星物産 專務理事 美國 10年	서울工大化工科 3年 美國 Iowa州立大學 Ph D	美國 Union Carbide社, 美國Dupont會社 KIST 韓洋化學 常任顧問
崔 順 達	金星社 中央研究所長 美國 20年	서울工大 電氣科 Stanford 大學 Ph D	Hewlett-Packard Co R 4D Engineer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Jet Propulsion Laboartory 勤務
朴 現 鎔	浦項製鐵研究所長 西獨 8年	서울大金屬科, 伯林工大 PhD	獨逸 Alusuisse工場, KIST

司會：崔炳午(科總理事)

馬景錫社長(科總副會長)께서 韓國經濟發展과 함께 앞으로 產業界 研究所가 頭腦產業 즉 知識集約에 따른 產業發展을 必要로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였고, 우리 企業이 日本에만 偏重할 것이 아니라 美國 또는 全世界를 相對로 發展해 나가야 한다는 點을 力說하셨습니다.

여기 앞에는 各 企業體에서 나와 계시고 또 海外에서 活動하시다 歸國하여 우리나라 企業體에서 重責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자리를 같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自由롭게 손을 들고 話順을 얻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얼마 前까지 外國에서 工夫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우리나라 電子通信계통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韓國通信技術研究所의 鄭萬永 소장께서 話順을 받아주시죠.

美國에서는 比較的 專門分野에서 活動하게 되는데 韓國에 나오면 專門의인 것 뿐만 아니라 管理的인 要素가 가미된 보다 넓은 分野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觀點에서 말씀해주시죠.

機會가 주어질때 열심히 해보겠다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鄭萬永 박사

저는 美國에는 잠깐 있었고 日本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歸國해서 遞信部와 原子力研究所에서 電氣 通信關係 일을 擔當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옮겨 電子分野를 研究하다가 지금은 다시 遞信部에서 通信電子關係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저에게 研究所 所長職과 같은 重責이 주어진 것은 아마도 韓國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parametric amplifier라고 해서 micro wave의 저자동증폭에 관한 연구로 學位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日本에서는 “오끼나와”까지 TV 中繼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人工 衛星 地上中繼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研究를 繼續했다면 아마도 이 分野에서는 世界的 權威者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世界的인 권위자가 되기 보다는 우리나라 產業系의 構造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世界 신경의 말단으로 先進國圈에 끼어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던지 하는 것에 대해 韓國에 나오으로써 폭넓은 工夫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自身이 專攻 以外에 原子力研究所에서 linear accelerator의 設計도 해보고 KIST에서는 半導體研究室長으로 있으면서 國內最初の 트랜지스터 IC에서부터 오늘날 TV, 其他 通信機의 remote Control의 전자전급장치에 쓰이는 diode를 만들어 냈습니다. Micro Wave를 한 사람이 TV까지도 손을 대어 國產化를 可能케 하는데까지는 상당히 주저도 했으나 學位科程을 工夫할 때 Micro Wave에서 얻은 基礎實力으로 하면 된다는 信念으로 했기 때문에 可能했다고 봅니다.

오늘날 工學을 工夫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갖고 참가해 보기 바랍니다. 기회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보려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李溶錫(在美科學者)

미시간大學에서 IC回路를 專攻하고 있습니다. 鄭萬永박사께서 우리나라 半導體產業이 어느 程度까지 와 있고 在外韓國科學技術者를 受容할 수 있는 能力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鄭萬永 박사

제가 처음 KIST에서 半導體研究를 始作할 때 우리나라에는 “모터롤러”라든지 “시그네틱스” 등 美國의 一流企業들이 와서 加工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三星半導體가 생겨 電子 팔목시계인 “씨모스”가 생산되어 輸出되고 있고 그밖에도 반도체처리공장이 여러군데 생겨 전자교환기에 쓰이는 産業用 半導體를 ITT, BTM 등에서

技術導入하면서 이에 따른 모든 기술이 完全히 導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産業用機器 더 나가서는 防衛産業用 半導體도 1981년도에는 國産化가 可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할일은 많은데 設計할만한 能力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Micro processor와 ECL回路를 設計할 수 있는 사람이 不足하고 또 研究所 뿐만 아니라 企業體에서 半導體産業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職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司 會』

요즘 한국에서는 무거운 “重”字 즉 heavy industry란 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調味料의 大名詞로 알려져 있는 ○○이 조미료에서 重工業에 눈을 돌려 味元重機라는 會社를 창원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金勝坤 專務로부터 會社의 立場과 앞으로 會社가 커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頭腦集團이 必要한지 들어보시죠.

### 金勝坤 專務(味元重機)

저희 會社는 限定된 chemical Equipment를 生産하고 있지만 저희 會社보다 더 큰 종합적 規模로 運營되는 會社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會社 施設은 現在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또 技能工의 水準도 相當합니다.

그런데 中間층 技術者의 能力이 不足합니다.

똑같은 機械를 生産하는데 所要되는 人力이 美國이나 日本에 비해 일만큼 차이가 있는지 또 韓國作業者들의 Workman ship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것이 가장 큰 問題입니다.

工場의 作業管理라든가 技術 그 自體는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Workman ship 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韓國의 많은 企業家들이 海外科學技術人들을 受容할 態勢가 갖춰져 있다고들 하지만, 내가 보기엔 研究機關 등을 빼놓고는 아직 未洽한 점이 많습니다.

外國에 있는 韓國과학기술자들이 한국산업계에 寄與할 수 있는 分野는 基礎技術의 能力을 培養하기 위한 國家的인 長期計劃과 新規事業을 企劃하고 執行하는 短期計劃에 參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運營되고 있는 産業體를 效果的으로 運營管理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오랫동안 經驗을 쌓았던 과학기술자가 한국에 나오면 한국기업체에서 그분들을 待遇할 때, 예를 들면 同窓生이 專務로 在職中이던 그 분에게도 그와 같은 職責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自己專門分野의 일은 못하고 專務로서의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問題點이 있습니다.

이것은 美國과 韓國社會가 다르다는 點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社會나 會社構造가 일선에 從事하지 않아도 社會나 會社에 寄與할 수 있다고 하는 구조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海外科學技術者들이 國內에 와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外國에 계신 여러분들께 바라고 싶은 것은 研究機關에만 從事하지 말고 可及的이면 一般産業體에도 많이 從事해서 經營이나 管理面의 技術도 가져다 주기 바랍니다.

### 産業技術에 偏重 管理技術 疎忽 오 기택 박사(재미과학기술자)

이번 産業視察을 다녀보고 異口同聲으로 技術者가 必要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美國에서 技術者는 살 수(誘致)있으나 管理者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은 것은 너무 産業技術의인 問題에만 神經을 쓰고 있지 管理者의 管理技術에 對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發展하고 먼 將來를 내다 보려면 技術者 뿐 아니라 技術者를 指導하는 管理者의 養成도 해야만 합니다.

제가 産業工學을 專攻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技術面에만 치중하고 관리분야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馬副會長께서 말씀하시길 美國에서 待遇하는 만큼 韓國에서도 待遇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態度를 보여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사 金錢的인 面에서 美國에서와 같은 水準으로 대우해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오래 定着한 사람들은 子女 教育문제, 家庭問題, 等으로 因해 歸國을 決定하려면 상당한 決斷力이 必要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技術者가 있다고 그를 불러들여 오래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그 必要로 하는 技術을 지적해서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면 자문에 응하는 방법이 실리적이고 봅니다.

海外 科學技術者들이 국내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長期 休暇를 利用해서 1~2週間 또는 1~2個月間 短期 技術協力이나 諮問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實効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短期間이라도 와서 일하다 보면 韓國生活에 익숙해지고 계속 머물게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한가지는 미국 教育의 단점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PhD 學位 소지자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 專門分野에만 置重한 나머지 全般的인 問題解決能力이 缺如되어 있다는 問題點이 擡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各 大學에서도 PhD를 받은 다음 產業體에서 몇 년적 實務經驗을 쌓은 사람이라야 教授로 採用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美國에서 PhD 學位를 받았다고 해도 韓國에 와서 일만큼 寄與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自身도 疑問입니다.

앞으로 在外科學技術者들을 초청한다면 學界와 實務經驗을 쌓은 사람을 초청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產業發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司 會』

在外 科學技術者 永久誘致에 앞서서 學術大會 program으로만 그치지 말고 特殊 전문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人力을 파악하고 이들을 요청하고 있는 產業體의 要望事項을 收合하고 企業과 在美科學技術者 사이를 中繼하여 短期間이라도 特殊한 전문기술지도와 交流를 할 수 있는 方法을 模索해 왔으면 좋겠다는 意見인 것 같습니다.

이 問題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具體的인 計劃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 제현 박사(在美科學者)

이 點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崔相壹 박사도 말씀하시겠지만……

今年부터 韓國에서 금번 學術大會와는 별도의 전문적인 學術강연회라든가 미니 심포지움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재미과학 평의회에서 의견교환을 거친 후 발표하겠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국내 여러분들이 聲援이 뒤따라야 겠지요.

### 최 상일 박사(재미과학 회장)

이 문제는 韓國에 올 수 있는 사람 즉 국내측 요구에 합당한 사람을 임시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科總이나 研究所, 大學, 產業體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한 특별강습회를 갖기 願하면 在美科協에 알려져서 本協會로 하여금 그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문가를 찾아 그 可能性을 打診한 후 늦어도 來年 여름까지는 몇가지 특별강습회를 가져 왔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교포二世인 大學生이나 大學院生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夏期放學 등을 利用하여 國內研究所나 大學校, 或은 產業界에 와서 일할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 『司 會』

제가 美國에 가서 몇몇 親舊들에게 들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친구의 夫人이 韓國에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反對하고 있었습니다.

그 理由는 韓國에서는 出退勤時間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退勤 後에는 술집 등에 들러 家庭生活에 不充實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夫人은 外國에 나오니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너무 답답해서 빨리 歸國하고 싶다는 相反된 얘기입니다.

이같이 歸國을 贊成하는 분도 있고 절대 反對하는 분도 있으나 夫人들께서 다소 반대하시더라도 韓國에 돌아오시는 쪽으로 생각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 찬모 박사(재미과학자)

科學技術과는 若干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산업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科學技術者を 誘致할 적에 本人에 대한 待遇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家族關係 가정문제로 해서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아무리 대우가 좋다고 하더라도 社會 전체가 受容態勢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特殊교육을 시킬 子女를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재미과학기술자가 많음) 한국에 나오고 싶어도 우리나라에 특수교육을 시킬 시설이 안되어 있으므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산업계에서 배려해 주셔서 가족들의 후생문제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management에 神經써야 돼

#### 김 응진 박사(재미과학기술자)

여러가지 事情에 依해서 永久 歸國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 오기턱 박사의 말과 같이 一時誘致에 대한 意見에 贊成합니다.

한 두달 정도의 개인적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10년 이상된 사람은 1~2년 정도는 休暇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KSEA 총람을 보면 누가 어디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이 總覽을 通信網으로 해서 國內에서 必要로 하는 技術 process에 대한 要請을 해오면 그 分野 뿐 아니라 다른 傍系知識도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어떤 분이 經營의 重要性을 말씀하셨는데 美國에서도 이의 重要性이 많이 論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年 동안에 National management association이 設立되어 中堅幹部들에게 人的資源을 어떻게 効率의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敎育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는 상태이므로 이제부터는 企業體에서 management에 神經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

요즘 미국에서 工夫하는 사람들 사이에 韓國에서는 博士學位 가진 사람의 대우는 좋으나 碩士, 學士 所持者에게는 대우가 못하다는 얘기가 오고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하루 빨리 박사學位를 받고 歸國해서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려는데 踴躍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美國產業體에서 10年 以上 實務經歷을 쌓은 有能한 科學技術者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대우를 잘해줘서 韓國에 誘致하면 직접적인 Know-How 등을 알 수 있어 產業體에 커다란 공헌을 하리라고 봅니다.學位에 너무 置重하지 말고 實際 經驗이 많은 분들을 誘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여성에게도 일자리를!

#### 성 은모(재미과학자)

캔사스大學에서 物理化學을 專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술대회에 참가한 목적은 韓國에 돌아와서 일자리를 求하자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直接學校나 研究所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한국에서는 아직도 女性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美國에서 생각할 적에는 女性도 能力만 있으면 就業이 可能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보니 굉장히 힘들더군요. 단지일 안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여성들도 노력만 하면 남성 못지 않게 일할 자신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박 건양(在美科學技術者)

저는 人口 5萬 정도의 조그만 都市에 살고 있는 시골사람으로서의 비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한국 과학기술자들을 recruit 하러 研究所 所長님들이나 企業體의 長께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시면서 大都市만 다녀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분들이 미국에 다녀가실지 3~4개월 지나서야 비로서 알게 됩니다.

재미과학에는 재미과학기술자들의 현황이 전공분야별로 잘 分類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recruit 할려고 美國까지 왔으면 專攻分野別로 사람을 求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美國에 오실 분들은 大都市만 다녀가실게 아니라 작은 都市에서 일하고 있는 韓國人들을 만나보시고 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司會』

조금 전 女性科學者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KIST의 권태완 副所長께서 특별히 女性研究員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 간담회가 끝난 다음 별도로 만나서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基礎科學者의 登用을 바람

#### 석 성호 박사(재미과학자)

먼저 학술대회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工夫했다고 해서 더 잘난 것도 나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 학술대회에 參加하신 분들이 각 분야별로 모여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를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어서 더 많은 사람이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原子物理學을 전공하는 분이 이번 대회에 나오고 싶었으나 별로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못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공학이란 분야이 공학을 할 수 있다고만 생각 말고 물리학 등 기초과학을 한 사람도 기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부라운 장관은 본시 물리학자로서 켈리포니아 공대학장이었으나 국방장관으로 등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리학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이같은 기초과학육성이 중요하므로 물리학 뿐 아니라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을 한 분을 많이 등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誘致보다 緊密한 協助를

#### ×××(재미과학 기술자)

저희는 약학분야에서 9명이 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학술발표를 마치고 대한약품공업협회 간부들과 만나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었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먼저 美國에 상임통신 책임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발간된 학보 등을 제약회사에서 중사하는 이들이 항공이나 선편으로 기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간되는 제약관계 잡지를 자기가 소속된 회사 도서실에 비치하기로 했고.

학교에 있는 이들은 도서실에 한국 약학관계 도서를 기증하여 韓國의 藥學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2년 후 모국에 다시 올 때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명년쯤 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meeting에서 基礎會議를 갖고 母國에서 實施할 심포지움의 제목을 1年前에 미리 받아서 그 內容에 따라 basic reserch manufactories process quality Control 등을 구체적으로 研究해서 發表하고 그 系統에 대한 심포지움을 個人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來日 이화여대 약대에서 미니 심포지움을 갖는데 여기에 우리도 paper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韓國에 永久的으로 나올 수 없지만 미국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國內學會와 因緣 맺도록

#### 김 병등 박사(재미과학자)

우선 歸國하는 것이 국가산업과 공업발전 뿐만 아니라 大學에 와서 가르칠 때 후진양성에도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오기택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와서 그 分野에 諮問을 해주는 것도 重要하다고 생각되나 좀 더 적극적으로 海外頭腦를 活用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海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외국에서 연구하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現地에 파견된 韓國의 開拓者라는 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곳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한국산업체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모국에 알릴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무궁무진한 보고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과학기술자들이 전공 및 분야별로 금속이던 금속학회, 화공하던 화공학회 등 한국학회에 소속되어 유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연락체제를 갖추게 되면 이들을 전문 분야별 파견원(상주대표)으로 지명하고 이들은 미국 과학계 기술계 등에서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당면한 문제나 연구현황 동태 등을 한국의 학회에 보고해줌으로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식이 책자에 발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工夫와 研究에 집중하다 보면 모국의 소식은 전혀 알질이 없습니다.

고작해서 친척, 은사나 선배를 통해 소식을 듣는 정도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 내가 할 일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상황판단이 어렵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것은 한국의 현황입니다. 어떤 공업이 발전되고 있고 어떤 연구소가 설립되며 어떤 과제의 연구비가 나온다는 자료는 재미과학회보나 "과학과기술"誌 등을 보고 알게 되는데 이런 책자들조차 제한된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 등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 『司 會』

이제까지의 질문 중 가장 관심 깊은 것이 韓國에서의 과학기술자 수용태세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포항종합제철 中央研究所 朴所長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美國에서 技術者는 살수(誘致)있으나  
管理者는 돈을 주고도 살수 없다

박 현순 소장(포항종합제철 연구소)

KIST에서 7년간 研究室에 근무하다가 약 3週 日前 浦項綜合製鐵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척 망서리던 나머지 결단을 내린 것이죠. 회사 자체여건이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고 본거지요.

연구소 設立을 추진하다 보니 젊은이들, 주로 과학원 졸업생이나 대학원생을 募集하게 되는데 이들의 요구가 국내나 외국에서 연구경험과 업적을 가진 이로서 自己들의 리더가 될 中堅 간부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浦鐵은 다른 研究機關과는 달리 뚜렷한 테마가 있고 주어진 테마로서 연구한 것이 positive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곧바로 실용화됩니다.

그러므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만족합니다 다만 자기들을 이끌어 줄만한 연구경험자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社長과 協議하였으며 특히 外國에서 많은 經驗을 쌓은 중견간부를 유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浦鐵은 금년 11월에 年産 550萬톤 규모, 81년에는 850萬톤 규모로 擴大됩니다.

이렇게 되면 會社자랑 같지만 世界랭킹 12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제 2 종합제철도 81년에 시작해서 84년에 1차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完工되면 1,200萬톤 規模가 되는데 總 2,000萬톤 규모로 成長되면 우리나라 鐵鋼系統 내지 材料分野의 研究에 浦鐵이 責任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明年부터 大德研究團地에 中央研究所를 建設하게 되며 84년에는 完成될 것이므로 浦項 뿐 아니라 大德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機會는 얼마든지 마련됩니다. 이점 유의 이해해 주시고 꼭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최 순달 박사(金星社중앙연구소 소장)

제가 별로 구변이 없습시다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온지 2년반 밖에 안되어서 國內事情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저도 겪어 보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57년에 渡美해서 工夫를 마친 다음 미국 산업체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76년에 귀국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KSEA 멤버였으며 창립위원으로 3代副會長도 역임했고 74년도 제 1차 國방문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당시 조국의 발전상을 보고 나도 이 대열에 참여해 보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와서 잘 살수 있는가? 대우는 어떤가, 자녀교육관계는 어떻게, 귀국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 것인지 하는 모든 문제에 관심도 많고 의문도 많을 줄 압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 경험을 토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보수가 많은 반면 지출면에서도 경제적이어서 무척 운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子女교육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저도 大學에 다니는 아이들이 미국에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의 말씀과 같이 부인이 죽어도 한국에 못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들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좋으나 나쁘나 하는 망서림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미국에서 한창 활약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40~50세 되면 美國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기왕에 나오실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자리를 잡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국은 텃세가 심한 곳입니다. 늦게 나와서 높게 될 수가 없어요 빨리 나오실수록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先輩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충고라고 할까요. 권하는 것입니다.

### 선우 의 박사(OB맥주 부사장)

제가 종사하는 곳은 業種이 “重”자가 붙은 곳도 아니고 더우기 여러분의 부인들이 고국에 나오기 꺼리는 원인 中 하나인 퇴근시간이 일정치 못하게 되는 저녁 酒店에서 쓰이는 맥주를 만드는 곳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저는 1956년부터 1960년까지 4年間 서독에 가서 공부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도 중에 會社職員 中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회사돈으로 외국에 유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會社 技術系에 從事하는 직원 중에는 PhD학위를 획득한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3개의 공장을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료수개발 뿐만 아니라 研究所를 두어 O.B.그룹에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製品을 研究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우리 O.B.그룹에서 일을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자리가 있으니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국내에 여러분들을 誘致하는 문제는 科學界가 상당히 分業化되고, 高度化, 精密化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맞는 데가 없어서 못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사정으로 기타 형편으로 못 오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海外에서 工夫하시다 작고하신 어떤 분에게 歸國해서 母國을 위해 일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 말씀이 한국에서는 자기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나는 韓國의 科學者라기 보다는 世界的 科學者가 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노벨상을 받게 되면 그것이 더 愛國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하면서 귀국을 꺼려하던 분이 생각납니다. 물론

그분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

한편 12년만에 귀국한다는 어떤 부부가 KAL 機上에서 母國을 밟기도 前에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흐르는 원인모를 눈물이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司 會

포항제철 건설소장으로 초기부터 활약하였고 완공을 한 후 지금은 판매회사 사장으로 계신 박종태氏를 소개합니다. 박종태씨는 이공로로 5. 16 민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박 종태 사장(포항제철 판매주식회사)

지금 현재 위치의 저는 일개 商人에 불과합니다. 제가 68년도부터 76년까지 포항종합제철 건설현장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별르 배우지도 못하던 6.25사변 무렵에 大學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不安한 知識과 영성한 지식을 갖고 현장 생활만 계속해 왔습니다.

포항제철은 초기에는 對日 청구권 資金에 의해서 건설이 됐고 우리가 제철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外國人 기술자들이 와서 감독을 담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제철은 모든 工學技術과 産業工學 分野까지도 총망라한 綜合技術集約體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外國人 技術者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분들이 韓國人이었다면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되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外國人이었기 때문에 自己會社에서 對外秘로 되어 있는 know how라든가 技術을 전수해 주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고충과 안타까움이 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工場 건설을 끝내고 조업을 하게 되고 보니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철강은 모든 産業의 基礎素材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인데, 一般강은 생산하는데 특수강을 못 내놓고 있으니 食卓에서 비유한다면 빵과 버터는 있는데 특별 메뉴를 못내놓은 격입니다.

그래서 自體的으로 研究室을 設置하고 이 부문에 많은 人力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가 만든 물건이니까 네가 팔아 보라고 해서 나와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물건을 팔다보니 결점도 발견되고 크레딧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지금 생산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 기술자들은 생산하는 입장에서 생산조업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문제점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박 박사의 말씀과 같이 포항제철은 81년까지 25억원을 들여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고 140여명의 연구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초연구 등이 완성되어 박 박사가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35억원 규모로 건설되는 大德연구소가 完成되면 150여명의 연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 말씀하셔서 한국기산산업 육성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분들이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저희 浦鐵에는 日本에서 많은 設備가 왔다고는 하지만 日本뿐만 아니라 技術內容 및 設備는 美國, 西獨, 오지리 프랑스 英國 등의 技術 및 設備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研究에 從業하시고 유창한 기술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일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선진국으로 발달됨을 하는 이 時期에 많은 數의 優秀한 在外 科學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司會』

정선호, 안영욱 두 박사에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두분께서는 개인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待遇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호 박사(대한전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사회에서 일하다가 70年度에 歸國했습니다.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KIST에 와서 일하다가 대한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관계에 말을 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쓰고 남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충분하므로 대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자의 대우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나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만큼 충분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처음 제가 한국에 나온다고 했을 때 反對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소신을 갖고 귀국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전자공학 분야를 공부했고 일도 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여건과 비교해 볼 때에는 기초과학이나 다름없는 응용수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내가 한국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關聯이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工夫하는 동안, 박사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물론 學科目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學科課程 외에 根本적으로 주어진 현상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問題點을 發見하고, 分析해서 그 문제점을 提示하여 解決方案을 강구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能力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술적인 면에서 볼 때 數學問題를 푸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한국에서의 여건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문제에 접해서 열심히 일해보니 때로는 실패도 하였고 때로는 성공도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大韓電線Co에서 家電關係事業을 전

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냉장고, TV, 라디오 선풍기 앰프에 이르기까지 家電製品 Consumer appliance에 關한 開發과 生産, 營業, 輸出 전반에 일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이제 大韓電線에 온지도 3年입니다. 그간 每年 2倍의 成長率을 至上課題로 定해놓고 열심히 일하고 보니 안될 것 같았지만 되긴 되더군요.

한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해결할 문제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問題意識을 갖고 問題點을 찾으면서 解決해 나가는 approach나 process로 일하는 態度와 意志가 主要하다고 봅니다.

美國에서 배운 것을 韓國에 적용시킨다고 할 때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용단을 내려 조국의 과학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 영옥 박사(三星物産 專務)

저는 1955년에 渡美해서 1969년에 歸國하여 KIST에서 오래 몸담고 있다가 최근 三星으로 옮겨 갔습니다.

저는 아침 7時 40분이면 늘 事務室에 가 있고 19時까지 근무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단이 필요하겠지요.

自信있게 世界的인 學者가 되실 분은 韓國에 오지 말고 그곳에 남으셔서 世界的인 大家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를 도와 주십시오.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學問입니다. 우리나라는 학문하고 학자가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成長이 두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굳이 귀국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훌륭한 學者가 나옵니다.

日本이 그랬고 스위스가 그랬듯이 자기 나라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世界的인 學者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범주에 속할 수 없는 분 즉 저같은 사람은 하루 속히 歸國해서 빨리 이 隊列에 끼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 봉완 전무(大成메탄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고 또 앞으로 당할 일입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말씀이 무슨 관광지 안내서같은 페스티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지 공산당과 사회주의와 같이 사람을 配給하는 그러한 社會制度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와 공업체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必要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서를 보고 旅行하듯이 莫然히 오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오십시오.

아직 우리나라 企業體長들 가운데는 19世紀末에 시작했던 Tailor system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90%나 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共產黨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사정 때문에 노동조합의 존재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기업주의 횡포가 있다고 봅니다.

品質管理나 企業經營이 未洽한 우리의 industrial engineering을 確立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美國과 日本 같은 선진국들과 競爭을 해야 하는 現實에 處해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필요한데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태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입니다.

19世紀末 미국이 겪었던 모든 問題들을 여기서도 겪고 있으며 또 21世紀로 向해야 하는 모순이 相互共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은 독일에 광부로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野菜商을 하는 분들도 아닌 지성을 가진 분입니다.

祖國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한국에 나오시려면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것쯤 감수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갖고 歸國하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대한 반

국가적 행위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직장을 구하는 것이니까 직접 뛰어들어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춘화 이사장(한국정밀기기센터)

저는 FIC理事長입니다.

FIC는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이라든지 기계공업에 대한 진흥업무를 하고 있고 그 밖에 품질 향상 문제라든지 혹은 기술자의 양성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반관 반민기관입니다. 군에서 將星으로 있다가 지금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름있는 과학기술자만 보시면 모든 일이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외국에 계신 과학기술자 여러분들이 국내에 와서 미국식 사고 방식으로 지나친 타당성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해외 여러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오래 머문 직원들 가운데는 미국화에 물들어 지나치게 타성화되어 불만스러울 때가 많습니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상태는 「하면 된다」는信念 이외에는 지향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日曜日도 必要하다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받아 들일려면 아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科總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行事를 주최했는데 이 행사도 이제는 상당한 年輪을 쌓았으므로 이제는 실리적인 면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외국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왔지만 제 자신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술행사도 좋지만 분야별로 기업체와의 접촉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경비가 소요된다면 기업체에서 뜻있는 분들이 흥이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체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대부분이 연구소나 대학 아니면 大企業만 생각하시지 中小企業에 가서 자

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열을 쏟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쪽에도 責任이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來年에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기업체를 대표하는 기관과 사전에 접촉해서 접촉결과에 따라 分野別로 分科委員會를 構成해서 진지한 討論을 갖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昨年에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데 따른 우리 앞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수준의 경영체제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는 문제입니다.

전자공업 분야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11억불을 수출했지만 수입도 그만큼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초부품의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은 최고품도 최하품도 아닌 번지없는 중간 제품입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중간제품의 需要者는 드물 것입니다.

이렇듯 국제경영 체제를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나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는 물론 대우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신적인 자세, 희생정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는 故國을 그리워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오시면 한국적 사고방식에 빨리 적응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너무 크고 높은 것만 생각지 마시고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밑바닥에서 밑결음이 되어야 겠다는 마음가짐을 당부합니다.

### 마 경석 사장(大林엔지니어링 Co)

지금까지 이춘화 理事長께서 指摘하신 內的인 준비관계가 미흡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科總副會長으로서, 또한 產業界를 代表한 立場에서 Organize가 改善되어야 한다는 點에 대해 사과를 드

리고 次期에 참고하겠습니다.

4차에 걸쳐 學術大會를 가졌지만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과도 事前 얘기도 못나눴습니다. 이자리는 기반 없는 의견 교환을 가져 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간 개최된 學術大會도 무슨 政治的인 뜻이나 어떤 다른 뜻이 전혀 없는 學術 심포지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KIST나 科學院 정도에서나 在外科學技術者를 초빙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產業系에서도 여러 科學技術者를 받아들일 態勢가 充分히 갖추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한 안 박사, 정 박사, 박 박사 등은 처음 KIST에서 5~6年間 계시다가 최근 企業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의 방증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閔寬植 大會長께서 오늘의 懇談會를 마무리 주시겠습니다.

### 閔寬植 大會長(科總 會長)

오늘 이 懇談會가 時間은 充分하지 못했어도 大端히 意義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國內 企業體, 研究所에서 나와주신 분, 그리고 在美科協의 과학자, 기술자,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自身이 政治生活을 오래 했기 때문에 科學者로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 보겠습니다.

平常時 馬 副會長의 말에 依하면 우리나라에서 科學技術者들을 賤待하고 있다고 不平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기라성같은 분들이 다 大企業體의 社長, 專務 등 重役이신데, 옛날 우리들이 科學을 工夫하고 學校를 卒業할 당시에 比하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國력신장파도 關係가 있겠지만 예전과

는 다르고, 또 科學 技術者는 말주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政治家 이상으로 말씀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大會에서 在美 技術分野의 分들은 國內 該當協會와 연결해서 Work Shop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基礎科學分野만은 그럴 方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까 李春和장군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고를 달게 받아 來年대회에는 더욱 알찬 수확을 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등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문제는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간담회가 의견교환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화 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미 과학 기술자들이 歸國하는 문제에 있어서 科總을 하나의 窓口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국내 기업체나 정부측과 절충해서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科總이 海外 科學 技術者들의 歸國을 周旋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一種의 犬馬之勞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在美科協 崔相臺會長과 次期 會長 김제현 박사에게 말씀드리고 “체널”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歸國하는데 夫人들의 反對가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國際政治를 工夫하면서 美國에 꽤 많이 다녀 왔지만 美國에 간 韓國婦人들이 점차 미국화 된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韓國에 나오시면 우선 韓國에서 으젓한 男便생활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祖國에 돌아 오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勸하면서 懇談會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歸國問題는 科總을 窓口로 利用하자